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Contents

- Highlight – Natural Capital Declaration
- UNEP FI 뉴스 & 출판물
- UNEP FI 행사
- UNEP FI 커뮤니티 및 파트너 뉴스
- UNEP FI 트레이닝
- UNEP FI KG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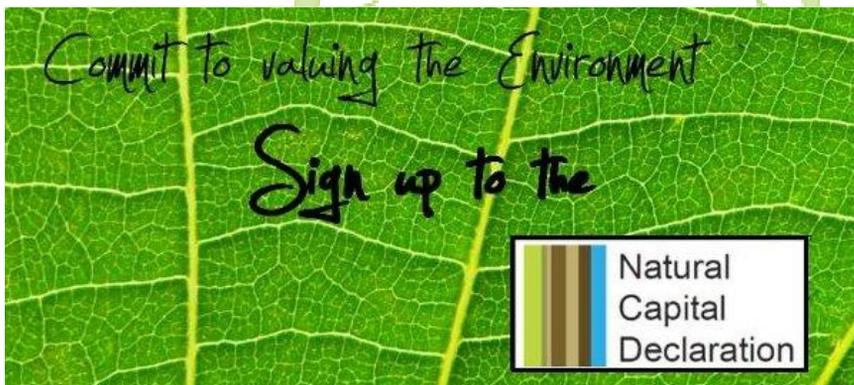
Natural Capital Declaration

National Australia Bank, Rabobank 및 Robeco는 자연자본선언의 첫 번째 서명기관으로써 은행의 운용자산에 있어서 자연자본의 중요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UNEP FI는 본 선언서를 지지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의 CEO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리우+20 정상회담에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통합시키기 위한 자연자본의 표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선언서는 은행, 투자자 (재)보험사를 지지하는 것이 그들 사업에 대한 자원자본의 금융적 물질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나아가 지지 기관들은 기업운용 속 자연자본을 통합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보고 및 재정 조치를 통해 기업들을 자극하는 규제적인 체제를 개발하도록 정부에게 요구하는 동시에, 대출, 투자 및 보험 상품과 서비스에 자연자본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본 선언을 지지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자연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중대한 경제적, 생태학적, 사회적 자산으로써의 자연자본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창출해 나가도록 요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Cop 17: UNEP FI, 저탄소, 기후 탄력적 경제를 향한 민간 자본의 동원 고취



17차 당사국 총회 (COP 17)에서 UNEP FI는 저탄소, 기후 탄력적 경제를 향한 민간 자본의 동원에 중점을 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회담에 참여함으로써,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공공-민간(부문)을 연결할 수 있었다.

본 회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를 다루기 위한 보험 업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접근법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금융의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설립 및 REDD+ 시행과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 졌다.

UNEP FI는 [Outcomes of the Global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Durban \(COP17\)](#)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였으며 본 웨비나를 통해 더반 회담의 결정사항과 그것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민간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민간 부문의 전문지식을 공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새로운 보고서: 변화하는 리스크 전망에서의 보험 - 남아프리카공화국 서던케이프에서 얻은 가르침



세계의 변화하는 리스크 전망을 주의하면서, UNEP FI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험사들을 대표하는 동향, 떠오르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보고서 출시를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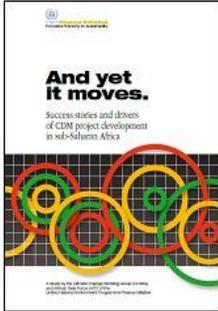
11월에 발표된 이 연구는 빠르게 진화하는 지역 리스크 관점에서 탄생한 문제들의 간단한 요약 제공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서던케이프 주(州)의 구체적인 예를 사용한다.

보고서가 표시한 리스크 요소들 중에는 증가한 인간개발과 자라나는 기반 체제/시설의 유해한 환경 등에 대한 노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패턴의 변화; 그리고 생태계 조정의 악화 및 소실이 있다.

또 한 이 보고서는 보험사들이 정부, 클라이언트 및 이해관계자들과 통합적인 방식에서 리스크의 추진 요인을 보다 조직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착수시켰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And Yet It Moves의 재출시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CDM 프로젝트 개발의 성공 스토리와 추진 요인



국제 탄소 시장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과 안정된 기후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저탄소 투자를 촉진하기로 약속해왔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CDM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기대는 특히 높았으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국가의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그리고 다른 기타 저탄소 기술에 걸쳐 이 연구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환경적 수익과 재정적 수익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다음 보고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재생에너지 자금조달, 2월 21일 케냐 나이로비

이번 달, UNEP FI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민간 금융의 추진요인과 장애물에 중점을 둔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자금 조달에 대한 면밀한 보고서를 출시할 것이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26%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전기 접근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가와 투자자의 참여가 결정적이다. 이 민간 자본가들을 위해, 프로젝트의 리스크-수익 개요가 자금 지원을 할 지 안 할지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 보고서의 중점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 인한 전기 발생을 위한 민간 투자와 금융 상승의 현재 장애물을 발견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자연자본선언 웨비나: 3월 6일 9am (CET)& 3월 7일 3pm (CET)

UNEP FI, Global Canopy Program (GCP) 및 제틀리우 바르가스 재단 (FGV)의 경영대학 지속가능연구 센터는 리우+20 지구정상회담에서 출시될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기본 요점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 웨비나에 모든 UNEP FI 회원들을 초대한다. 웨비나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 NCD의 구성요소;
- 왜 금융기관 -은행, 투자, 보험계-은 NCD에 관심을 갖는가;
- 금융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NCD를 지지할 수 있는가;
- 왜 NAB과 Rabobank는 지지자로서 NCD 전념하는가?;
- 리우+20을 위한 계획.

본 세미나는 중간에 패널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상호작용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기후변화에 대한 2012 온라인 강좌 업데이트: 금융 부문의 리스크 및 기회

다음 강좌: 2012년 4월 16일~5월 7일



기록적인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록적인 기후관련 영향, 비용, 손실을 봤을 때 우리는 기후변화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력의 보다 나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Climate Change: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nance Sector' 온라인 강좌는 참석자들에게 기후변화를 뒷받침하는 과학에 대한 근본적 이해, 국제 기후변화제도의 구조 및 금융 시장-은행, 투자, 보험계에 걸친-이 어떻게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대처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갖춰 준다.

자세한 내용 및 등록은 [여기](#).

환경, 사회 리스크 분석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영어: 2월 20일;

프랑스어: 2월 27일-3월 16일;

프랑스어: 3월 12일-30일;

본 강좌의 목표는 대출과 투자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 사회 리스크의 식별, 분석 및 관리 부분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을 상대하는 혹은 그곳에서 운영하는 상업, 기업, 투자 및 소매 은행업의 리스크 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 및 등록은 [여기](#).

FEED 온라인 강좌

다음 강좌:

스페인어: 6월 11-29일

본 강좌의 목적은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특히 건물에 자금 지원과 투자를 통해 저탄소 경제로 향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 및 등록은 [여기](#).

12월, 1월 신규 서명기관

Actis의 투자위원회 가입과, Bradesco Bank, Bank bjb 및 Garanti Bank의 등장으로 UNEP FI의 빠르게 성장하는 बैं킹 위원회는 확대되고 있다.



Actis는 세계 최대 사모투자회사중 하나로 2004년 170억 달러 규모로 설립된 이후 현재 430억 달러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Actis는 두 가지 동향에 응하여 투자한다 (New consumer class 및 sustained investment).



68년 전에 설립되었고, 상파울루, 뉴욕, 마드리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Bradesco Bank 는 브라질 최고의 프라이빗 बैं크들 중 하나이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다.



Garanti Bank은 터키에서 두 번째로 큰 프라이빗 बैं크이며, 터키 은행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Bank bjb 는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의 상업 은행으로, UNEP FI에 신선한 관점을 불러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지속가능한 बैं킹에 대한 파트너십의 이해도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Globe 2012, 3월 14-16일, 캐나다 밴쿠버



UNEP FI는 금융의 지속가능성, 책임투자, 통합보고 및 보다 깨끗한 경제 보존에 대한 중대한 대화를 위한 플랫폼인 GLOBE 2012의 파트너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세계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갈수록 중요해지는 지속가능성의 역할을 고려함에 따라 세계의 기업과 정부 지도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글로벌 에너지 바젤, 2월 21-22일, 스위스 바젤



본 UNEP FI 지원의 정상회담은 GEB 프로페셔널 플랫폼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인프라 정책 및 자금 조달을 다루기 위해 가장 이슈가 되는 정부, 경제, 사회의 대표를 한데 모았다. 본 컨퍼런스는 바젤시 시장 Guy Morin과 스위스경제사무국 (Swiss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 사무국장 Marie-Gabrielle Ineichen-Fleisch의 주도 하에 준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TBLI (Triple Bottom Line Investing) Conference Asia 2012, 5월 24-25일, 중국 홍콩



본 컨퍼런스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ESG)와 임팩트 투자에 대한 주요 글로벌 네트워크 및 학습 이벤트이다. 2012년의 테마는 "왜 점령하는가? TBLI를 시도하라! (Why Occupy? Try TBLI!)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KB국민은행,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16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강당에서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강연과 함께 KB국민은행을 비롯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8개 서민금융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개별 상품창구를 개설해 200여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금융애로와 의문사항 등에 대해 상담이 진행됐다. KB국민은행은 현장에서 행사 참여고객이 `KB새희망홀씨` 대출상담을 받고 대출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의 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금융교육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 금융권 최초 사회공헌재단 설립



DGB금융그룹은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종합사회공헌재단인 DGB사회공헌재단을 설립했다. 150억원의 재원으로 꾸려진 DGB사회공헌재단은 ㉠장학재단 ㉠사회복지 ㉠문화예술 ㉠환경·글로벌 ㉠사회적 기업 등 5개 분야에서 종합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은 DGB러브펀드(LOVE FUND)를 조성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 펀드는 매월 임직원이 출자하는 참여분만큼 은행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매칭 펀드로, 대구은행은 이 펀드를 재원으로 저소득가정에 연탄과 김장을 나눠주고 무료급식 행사를 열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연말에는 금융권 최초로 '전임직원 급여 1% 사랑나눔운동'을 전개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대구은행의 대구 지역 수신은 전체의 44.2%, 여신은 35.2%를 차지해 지역 1등을 차지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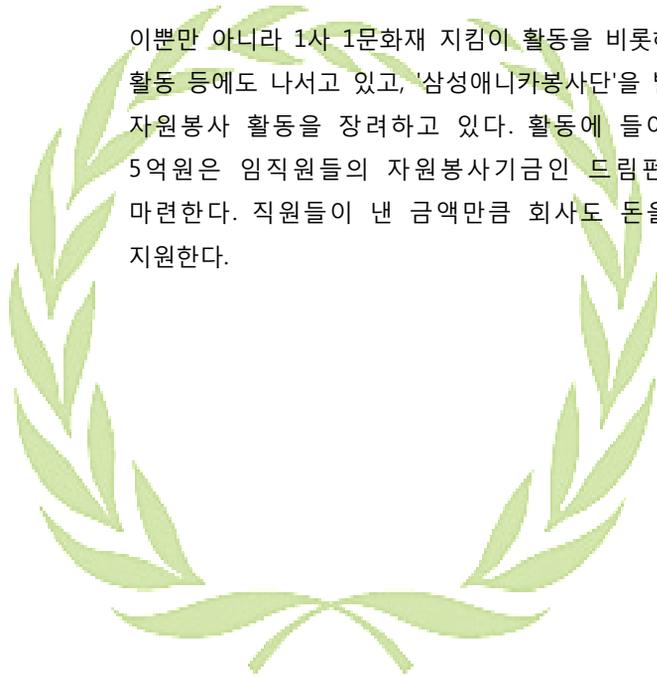
삼성화재, 27년간 시각장애인에 안내견 149마리 기증 일반인에 장애인식개선 활동... 올바른 교통문화 전파도 힘써

삼성화재 사회공헌 활동은 업종의 성격에 맞춰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자동차 전문 박물관인 '삼성화재교통박물관'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술활동, 교통안전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지원, 계층별 교통안전교육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지원사업,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환경을 위한 해피스쿨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에 더해 순직경찰유자녀와 함께 순직소방관 유자녀 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특히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통해 현재까지 총 149마리의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에게 기증했고, 시각장애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장애인거주환경 개선 프로젝트 '500원의 희망선물'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사 1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비롯해 도심 숲 가꾸기 활동 등에도 나서고 있고, '삼성애니카봉사단'을 발대해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활동에 들어가는 연간 경비 5억원은 임직원들의 자원봉사기금인 드림펀드 운영을 통해 마련한다. 직원들이 낸 금액만큼 회사도 돈을 내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사랑의 독서상자 만들기' 봉사활동

신한은행은 22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희망샘 지역아동센터에서 임원 자원봉사활동인 '사랑의 독서상자 만들기'를 실시했다. 완성된 독서상자는 센터 내에 설치돼 도서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임원자원봉사활동은 지난 2004년 임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된 후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져 매월 넷째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독서상자 만들기 외에도 도서구입비, 금융상식 서적, 청소년 권장도서 등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거래 협약

우리은행이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거래은행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주거래은행 선정 공개입찰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으며, 앞으로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주거래은행으로서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측은 특히 에너지 낙후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진행키로 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해 단순한 주거래은행 관계를 넘어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하나은행, 사랑복지공동모금회에 차량 전달식 가져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복지단체에 차량을 기부하기로 하고 17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지원사업'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12월 공익신탁 수익금으로 조성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총 10억원의 기금 중 일부분으로 시행됐다. 이 공익신탁 기금은 이번 '차량지원사업' 외에도 향후 전국 55개 사회복지단체 후원 및 90여개 고등학교에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최초로 공익 실천을 목적으로 개발된 하나은행의 공익신탁은 일반 가입자들의 수탁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신탁원금이나 이자 수익금을 육영 및 사회복지 사업에 기부하는 상품이며, 최근까지 31차례에 걸쳐 총 124억원의 공익신탁 기증금을 약 2,900개처에 지원해 왔다.

수출입은행, 1社1村 수출... "해외 오지마을과 결연"

한국수출입은행이 1사1촌 운동의 글로벌화를 위해 국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원조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해외 개발도상국 오지마을과 연내 1사1촌 결연을 추진키로 했다.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탈북자의 사회 적응을 돕고 소외된 지방 다문화 가정을 알뜰히 보살피는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은은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으로 쌓은 개도국 빈곤 퇴치 경험을 토대로 코피온,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등 국제 비정부기구(NGO)나 민간 원조기관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왔다.

수은 관계자는 "올해 사회공헌예산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30억 원으로 책정됐다"면서 "약자 배려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탄배달·쌀 기부 등 사랑 시리즈 운동

현대해상은 임직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매주 봉사활동에 나서는 '하이 라이프(Hi-Life) 릴레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연말 시행하고 있는 사랑나눔장터, 사랑의 연탄배달, 사랑의 쌀 기부 등 사랑 시리즈 나눔 운동도 나눔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사적 봉사활동이다.

H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특히 보험사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이다. 그 중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18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워킹스쿨버스' 같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단법인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 한국교통안전협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음악대회'도 개최한다. 지난 해 두 번째로 맞은 이 행사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해상은 임직원이 매월 받는 급여에서 2,000원 미만 금액을 적립해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돕는 '자투리사랑운동'도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를 잃었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는 교통사고 유자녀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기념일에는 기념 선물 등을 제공한다.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ECO-FRONTI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 49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

